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 영향 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선희(白善喜)**

심우정(沈雨貞)***

논문 요약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적응하고, 취업 준비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고등학교 경험과 대학 수학을 위한 준비도는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에 비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관심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5차년도와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 및 영향 요인을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진로행동, 진로정체감, 직업가치관 모두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에는 부모의 지원,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다양한 영향 요인이 나타났으나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경험에서 영향 요인이 많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대학의 풍토가 진로정체감 및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진로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전문계고, 특성화고, 진로행동, 진로정체감, 진로가치관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조교수

I.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전문계¹⁾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이상준, 김나라, 윤여인, 고재성, 2008), 2015년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의 약 36%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 혹은 높은 연봉을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고졸자,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로서 사회적인 무시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김수구, 2007). 전문계고 학생들의 개인적 열망과 맞물려, 2004년도부터 실시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도입(최지연, 2012)과 고등교육 기관 수와 학생 정원의 양적 증대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김수구, 2007). 가장 최근에는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재직자 특별전형’이 도입되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들의 대학 진학 기회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계고 출신 학생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부터 입학 후 적응에 이르기까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전문계고 학생들은 대입 준비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중 기초 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의 필수단위가 25단위(일반계고는 45단위)이고 직업 관련 전문교과의 필수 이수 단위가 86단위인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또한 전문계고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최지연, 2012). 따라서 전문계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계획에 맞는 체계적인 학과 및 진로를 선택하기 보다는 입시 성적에 맞춰 학과와 대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김영희, 김성봉, 2011), 이는 대학 진학 후 전공만족도 하락으로 연결된다(이상준, 김나라, 윤여인, 고재성, 2008).

일반적으로 진로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진로준비도가 낮은 경우, 대학 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남아란, 하정, 2012),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우 일반계고 졸업생들보다 취업 목표의 설정 및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상준 외, 2008). 이렇듯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대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대학 진학 이후의 적응에 이르기까지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다.

고등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의 적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1) 2016년 현재의 고등학교 유형 구분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특성화 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08-2010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시기는 특성화고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 유형이 존재하던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돕는데 있고,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개발 및 사회진출 지원은 대학의 주요 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책무는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 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이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진로행동, 진로정체감, 직업가치관-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 2)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분석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학생의 진로특성과 그 영향 요인을 주로 분석하여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 및 영향 요인을 진단함에 있어 기초로 삼고자 한다.

1. 대학생의 진로특성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위하여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skill)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은 고등교육 기관 재학 중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통하여, 또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적 역량을 발달시켜 자신의 진로특성을 향후 진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고 진로특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으로는 주로 진로성숙도(유은영, 양유정, 2013), 진로준비행동(김수원, 2012; 김지연, 이경희, 2016), 진로결정과정(김태석, 이기학, 2012), 진로정체감(이상길, 2006) 등이 있다.

진로성숙도는 여러 가지 진로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다양하게 측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은영, 양유정(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의 개념을 '진로선택이나 계획에서의 준비'정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진로성숙과 학과만족도 및 진로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Super(1965)는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을 "진로발달

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로 정의하고,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을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이재창 외, 2014, p. 71에서 재인용). 한국진로교육학회(2011)에서는 진로성숙을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탐색하여 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선택을 위하여 개인에게 최소한의 성숙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p. 161).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진로특성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있는데, 이는 진로를 위하여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준비행동에는 진로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설정한 진로 목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목표달성활동 등이 포함된다(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또한 진로준비행동의 한 영역인 진로탐색활동에는 면접훈련, 취업정보 검색, 학교지원서비스 이용, 사설취업알선기관 상담 등이 포함된다(김수원, 2012).

다음으로 대학생의 진로특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을 들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picture)을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한다’(이상길, 2006).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데 비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며,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른 결정을 한 학생일수록, 자연공학전공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보다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갖고 있다(이상길, 2006).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결정이 달라질 수 있어(박완성, 2002) 진로정체감은 대학생의 진로특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관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보다는 진로에 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안강현, 이용환(1998)은 직업가치관을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혹은 종사하려는 직업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p. 3)으로 정의하고, 직업에 대한 가치의 하위 영역으로는 보수(예: 직업을 갖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능력(예: 자신의 기술이 향상될 때 성취감을 느낌), 지위(예: 직업 만족감은 높은 지위를 획득하였을 때), 기여(예: 업무의 가치는 사회에 공헌할 때), 성취(예: 직업을 갖는 이유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 안정(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새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을 들고 있다. 동연구에서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의 하위영역을 조사한 결과 직업을 갖는 목적에 대해 보수, 성취, 능력, 지위, 기여, 안정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직업가치관은 대학졸업자의 첫 직장 만족도와 직무적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오성욱, 이승구, 2009) 대학생의 진로 선택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2. 진로특성 영향 요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생 개인 특성 및 대학에서의 경험 및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개인 특성의 영향

대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으로는 우선 성별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진로성숙도 및 진로와 관련된 취업 성공에 있어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여전히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승철, 문혜영(2014)의 연구서는 이공계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연봉 및 근무환경, 기업인지도 및 평판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국제적 경험을 더 중시하고, 남학생은 자기계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공계열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남녀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원정, 오명숙(2013)은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와 자신감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공분야로의 진출 의지와 전공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공학계열에서의 전공에 대한 태도는 남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희(2013)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들에 비해 진로인식, 학습선호, 활동참여 그리고 진로만족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공수행과 전공에 대한 집중도는 여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유사하게 탁승현, 김성희, 구혜령(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윤정혜(201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인 요인으로 학생의 전공 계열을 들 수 있다. 김유희(2013)에 따르면 사회과학계열과 보건계열 학생들의 진로선택, 전공적응에 대한 차이를 진단한 진로선택과 만족은 보건의료계열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공에 대한 집중은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gen, Dallam, Laverty (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전공(general majors)보다 전문적인 전공(공학, 교육학, 경영학 등)의 학생들이 취업에 더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상길(2006)의 연구에서는 자연공학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탁승현 외(2013)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자연과학계열의 학생이 사회과학계열이나 교육보건계열의 학생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어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와 관련된 특성에 있어 전공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특성으로는 가족과의 의사소통(탁승현 외, 2013)과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금지현, 2012), 부모와의 관계(기영락, 임성택, 2010)를 들 수 있다. 탁승현 외(2013)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에 속한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밝히고 있고, 금지현(2012)은 교육대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모의 진로에 대한 지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기영락, 임성택(2010)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요인은 진로성숙도에 부적 관련성, 업격요인은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헌신성과 존경성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경험의 영향

대학교육 경험 중 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학의 교육과정, 대학 내에서의 활동, 그 외 대학 생활 중 경험을 들 수 있다. 김원정, 오명숙(2013)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중에 있는 이공계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정과 대학 생활 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에서의 발표 능력, 영어 및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 지식, 전공 외 지식의 순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 외 활동에서는 어학연수 등의 해외연수, 동아리·학생회, 공학관련 공모전 및 경시대회 입상, 자원봉사 활동, 교수 프로젝트 참여, 졸업생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기업 인턴십 경험,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밖에서의 경험에 비해 대학 내에서의 경험이 취업이나 진로에 유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및 진로 지도에 의지하기 보다는 취업 정보 검색, 취업부탁 혹은 구직정보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진로 탐색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원, 2012).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대학 내에서의 교육 경험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취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gen, Dallam, Laverty(2000)는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대학 경험의 어떠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에서의 경험보다는 학생의 개인적인 요인(전공, 학점, 대학입학시험 성적)이 취업에서의 성공에 더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요인을 통제한 후 대학에서의 경험 요인은 졸업 후 직업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해 본 경험과 학생회 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취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직업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해 본 경험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공학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며, 학생회 활동 참여는 대학입학성적이 좋고, 인문계의 전문화된 전공(예: 교육학)의 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ult, Redington, Schlager(2000)의 연구에서는 경영학 전공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인턴십 경험이 취업 초기에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시간, 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 내에서의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 대학 내에서의 프로그램 보다는 취업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학생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취업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 혹은 관계의 대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는 국내에서는 많지 않다. 진로와 관련된 진로장벽(류정희, 2014), 대학생활적응(류운석, 2012)과 교수 및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류정희(2013)의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과 진로장벽 저하에 교수 친밀감(학생들이 교수가 친근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과 교수 전문성(학생들이 학과 교수들이 담당 교과에 대해 전문성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 긍정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운석(2012)은 전문대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친밀감, 전문성, 강의능력, 지도성 인식 중, 친밀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동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류정희(2013)의 연구와는 달리 교수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활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 수집하여 제공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의 5차년도(2009년), 6차년도(2010년), 7차년도(2011년)의 자료로, 이때의 고등학교 유형은 2017년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0년까지는 일반계고와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던 고교 유형이 2011년부터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분화되면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었고, 이 중 일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10년까지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된 학교 대부분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는 점, 그리

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1년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 및 영향 요인을 진단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의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KELS는 매년 여름 또는 가을에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과 학교의 교육경험, 학습자 특성 및 학업 성취를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학생에 관한 다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7차년도 설문은 2011년 11월에 실시되었는데, 대학에 진학한 연구 참여자들이 1학년 2학기를 절반이상 보내어 대학경험과 환경에 대해 타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대학교육, 대학생활, 대학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료로 적합하다.

KELS의 모집단은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150개교에 재학 중인 6,908명이며, 이중 KELS 7차년도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4,850명(응답률 70.2%)이다. 7차년도 설문 참여자 중 취업 준비생, 구직자, 진학준비자 등 현재 대학에 재학 중에 있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자는 3,686명으로, 분석대상 중 전문계고 졸업자는 630명(17.1%), 여성은 1,912명(51.9%)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4년제 혹은 전문대학 재학 중인 학생은 1,266명으로 분석대상 대비 35.3%를 차지하였다. 분석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분석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명	사례수	비율
성별	여성	1,912
	남성	1,774
	계	3,686
출신고교	전문계고	630
	일반계고	3,056
	계	3,686
진학대학 유형	4년제 대학	2,368
	2년제 대학	1,318
	계	3,686
진학대학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	1,266
	그 외	2,324
	계	3,590
학년	1학년	3,679
	2학년 이상	6
	계	3,685

2. 변수 및 분석모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이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

발달 검사(박가열, 노경란, 2006)를 활용하여 7차년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진로특성의 하위 요인으로는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를 측정하는 진로계획성, 직업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를 묻는 직업가치관, 진로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 등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진로정체감, 그리고 진로 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진로행동이 있다. 진로특성 측정도구는 총 22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아니다 ~ 6: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진로 관련 태도, 행동,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각 하위요인별 점수를 총합하여 개인의 진로특성을 가늠한다.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요인 분석 결과, 진로계획성과 진로행동은 하나의 하부요인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계획성과 진로행동을 하나로 묶어 진로행동이라는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한 진로특성 각 하위요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진로행동(10문항)과 진로정체감(6문항)의 경우 각각 .87과 .78로 적절한 수준이었다(Macmillan & Schumer, 2001). 직업가치관(3문항)의 경우 .66으로 신뢰도 계수가 낮은 수준이었으나, 10개미만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경우 신뢰도 계수 .60 이상을 적정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Loewenthal(1996)의 제언에 따라 직업가치관의 신뢰도 역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 배경 특성,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경험과 환경 특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개인 배경 특성에는 성별, 부모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 정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진로 특성 수준을 포함한다. 우선, 성별은 이항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 여부는 7차년도 설문 공통 문항 중 부모의 지원 정도를 묻는 4개의 문항(문항 예시: 나의 공부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으신다[학원, 특강, 교재 등]) 값을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 지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높은 편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진로 특성 수준은 본 연구의 3가지 종속변수의 사전 측정값에 해당하는데, 종속 변수와 동일하게 각각의 척도를 구성하여 해당 종속변수에 대한 분석 시 활용하였다. 즉, 진로행동에 대한 분석모형에서는 고2 시절 진로행동 척도를, 진로정체감 분석에서는 고2 시절 진로정체감을, 직업가치관 분석에서는 고2 시절 직업가치관 측정치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진로특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진로행동 .88, 진로정체감 .78, 직업가치관 .64로 적절한 수준이었다(Lowenthal, 1996).

대학경험에는 대학 전공계열, 주당 학습 시간, 강의 수강 시간, 수업 외 교수 및 선후배와의 교류 빈도,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포함하였다. 전공계열의 경우, 인문, 사회, 교육계열 재학생을 준거로 하여 이공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을 비교하였다. 주당 학습 시간과 강의 수강 시간은 학생들의 주별 시간활용을 8점 척도로 측정된 것으로, 각 척도에서 제시한 시간 범위(예: 1시간~2시간)의 중간 값으로 척도값을 변환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업 외 교수 및 선후배와의 교류 빈도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 이외의 교수 혹은 선후배와의 인적 교류의 빈도를 각 7문항, 9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척도는 신뢰도 계수가 .86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제공한 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두 유형의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두 유형 중 하나만 참여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참여한 경우로 구분하여 0~2의 값을 부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학특성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와 학생이 인식한 대학풍토 관련 2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대학의 소재지는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을 준거변수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을 비교하였다. 대학의 풍토는 7차년도 설문에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풍토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전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재학 중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학생의 교육과 수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교육과 학생 학습을 강조하는 풍토와 실용적, 실제적 교육을 강조하는지의 정도를 측정한 실용적 교육 강조 척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상기 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3과 .76으로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 활용한 종속, 독립 변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입력 방식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변수설명 및 자료입력 방식

구분	변수명	내용 및 자료입력방식	
종속 변수	진로행동	진로 준비, 계획 및 계획 실천 정도 (예시문항: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진로 특성	진로선택 관련 개인특성 이해 정도 (예시문항: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직업가치관	직업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예시문항: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역코딩))	
개인 및 배경 특성	성별	응답자의 성별	1=여학생 0=남학생
	부모의 지원정도	부모님의 심리적, 재정적 지원 정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고2 진로 특성	진로행동	고2 시절 측정한 진로 준비, 계획 및 계획 실천 정도
	진로정체감	고2 시절 측정한 진로선택 관련 개인 특성 이해 정도	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
	직업가치관	고2 시절 측정한 직업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구분	변수명	내용 및 자료입력방식
대학 전공계열	대학 전공계열	학과분석 및 학과분류체계 연구에 따른 대학 학과계열 0=인문, 사회, 교육계열
	주당 학습 시간	주당 개인 학습시간 총계 0시간~21시간 이상
	주당 강의수강 시간	주당 강의수강(실습포함) 시간 0시간~21시간 이상
대학 경험	수업외 교수와의 교류	수업외 교수와의 교류 빈도 (예시항목: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 1=전혀 안함 6=거의 매일
	수업외 선후배와의 교류	수업외 선후배와의 교류 빈도 (예시항목: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 나눔) 1=전혀 안함 6=거의 매일
대학 진로교육 참여정도	진로상담 및 진로,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 경험	0=참여 안함 1=진로상담 혹은 진로,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참여 2=진로상담과 진로,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모두 참여
대학 특성	교육, 학생학습 강조	교수의 교육, 수업에 대한 열성 정도 (예시문항: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열성을 다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실용적 교육 강조	실용적 인재양성, 실제적 교육을 강조하는 정도 (예시문항: 실용적, 실제적 교육을 강조한다.)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1=서울, 인천, 경기 0=그외

IV. 연구결과

1. 출신 고교 유형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출신 고교 유형별 종속,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분석과 차이검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1학년에 각각 측정된 진로특성 하위요인별 차이를 보면, 진로행동에서는 출신 고교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1학년 모두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이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높고 직업가치관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출신 고교 유형별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결과

변수명	일반계고			전문계고			t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진로특성 (종속)	진로행동	3055	4.10	0.78	629	4.10	0.79	0.24
	진로정체감	3055	4.48	0.67	629	4.40	0.72	2.74**
	직업가치관	3055	4.33	0.97	629	4.09	0.97	5.55***
진로특성 (고2)	진로행동	2849	3.80	0.86	578	3.76	0.82	0.93
	진로정체감	2849	4.42	0.83	578	4.32	0.85	2.53*
	직업가치관	2849	4.42	0.97	578	4.19	0.97	5.06***
성별 (여성=1)	3056	0.52	0.50	630	0.52	0.50	0.16	
부모의 지원정도	3055	3.84	0.70	630	3.69	0.72	4.84***	
대학	인문,사회,교육계열	2969	0.44	0.50	614	0.39	0.49	2.33*
	이과계열	2969	0.12	0.33	614	0.10	0.30	1.47
	공과계열	2969	0.24	0.42	614	0.25	0.43	-0.71
	예체능계열	2969	0.12	0.32	614	0.19	0.39	-4.94***
	의약계열	2969	0.09	0.29	614	0.08	0.27	1.14
학습 시간	3054	5.25	5.13	630	4.04	4.76	5.45***	
강의수강 시간	3054	14.88	6.92	630	13.04	7.93	5.94***	
교수와의 상호작용	3056	2.90	1.04	630	3.21	1.10	-6.89***	
동료와의 상호작용	3056	3.35	1.16	630	3.21	1.20	2.65**	
진로교육 참여정도	3055	0.70	0.82	628	0.75	0.83	-1.59	
교육, 학생학습 강조	3056	3.49	0.70	630	3.49	0.69	0.13	
실용적 교육 강조	3056	3.27	0.76	630	3.32	0.74	-1.52	
수도권 대학 재학	2975	0.35	0.48	615	0.37	0.48	-0.94	

*p<.05, **p<.01, ***p<.001

개인 배경 특성 변수에서는 부모의 지원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에 비해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충분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신 고교 유형별 대학 전공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경우 전문계고 출신에 비해 인문, 사회, 교육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높고, 예체능계 전공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의 경우,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5.25시간인데 비해, 전문계고 출신학생은 4.04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강의 수강시간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14.88시간,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13.04 시간으로 전문계고 졸업자들이 개인적 학습과 학교에서의 강의 수강에 유의하게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적교류에 있어서는 교수와의 교류는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이, 선후배 학생들과의 교류는 인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신 고교 유형별 진로특성 다중회귀 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 출신 고교의 유형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시절과 대학 진학 이후에 진로 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신 고교 유형별로 진로행동, 진로정체감, 직업가치관에 대한 다중회귀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출신 고교 유형별 진로행동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IV-2>와 같다. 모형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제시하였다.

1) 진로행동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행동 수준에 있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의 진로행동 수준의 영향력이 각 .42와 .33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진학 이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후에도 진로행동에 있어 실천력이 높았다. 개인 배경 변수 중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일반계고 및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행동 수준에 공히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로부터의 받는 지원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학생들의 진로행동 수준이 높았다($\beta_{\text{일반계고}}=.08$, $\beta_{\text{전문계고}}=.11$).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계고 출신학생들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진로에 대한 계획이 더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eta=.06$).

<표 IV-2> 출신 고교 유형별 진로행동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진로행동	일반계고				전문계고			
	b	S.E.	β	t	b	S.E.	β	t
(상수)	1.25	.11		11.11***	1.23	.28		4.48***
성별 (여성=1)	.09	.03	.06	3.43**	.02	.07	.01	0.35
고2 진로계획·행동	.38	.02	.42	23.40***	.32	.04	.33	7.52***
부모의 지원정도	.09	.02	.08	4.39***	.12	.05	.11	2.26*
대학								
이과계열	-.00	.04	-.00	-0.09	.13	.09	.05	1.38
공학계열	-.06	.03	-.03	-1.82	-.06	.08	-.03	-0.78
전공								
예체능계열	.06	.04	.02	1.41	.12	.09	.06	1.44
의약계열	.03	.04	.01	0.82	.03	.09	.01	0.34
학습시간	.02	.00	.12	7.34***	.03	.01	.16	3.93***
강의수강 시간	-.00	.00	-.03	-2.08*	-.01	.00	-.08	-1.93
교수와의 상호작용	.11	.01	.15	8.43***	.13	.03	.17	4.00***
동료와의 상호작용	.03	.01	.04	2.40*	.06	.02	.09	2.46*
진로교육 참여정도	.06	.02	.06	3.69***	.04	.04	.05	1.24

진로행동	일반계고				전문계고			
	b	S.E.	β	t	b	S.E.	β	t
교육, 학생학습 강조	.04	.02	.04	1.93	.03	.05	.03	0.59
실용적 교육 강조	.11	.02	.11	5.37***	.13	.05	.12	2.369*
수도권 대학 재학	.03	.03	.02	1.04	.02	.06	.10	0.32
n	2,766				561			
F	104.91***				18.90***			
R2	.37				.34			

*p<.05, **p<.01, ***p<.001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출신자 모형 모두에서 대학 전공에 따른 진로행동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대학경험 및 대학 특성 변수들 중 다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계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학습시간($\beta=.12$), 교수와의 상호작용($\beta=.15$), 동료와의 수업 외 교류($\beta=.04$), 진로교육 참여정도($\beta=.06$)가 학생들의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에서의 강의 수강 시간($\beta=-.03$)은 오히려 학생들의 진로행동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의 풍토가 실용적 인재양성을 강조할수록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진로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11$).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경우에도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과 유사하게 주당 학습시간($\beta=.16$), 교수와의 상호작용($\beta=.17$), 선후배와의 상호작용($\beta=.09$), 실용적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풍토($\beta=.12$)가 진로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고와는 달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참여수준과 주당 강의 수강 시간은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진로정체감

진로행동에 이어 진로정체감에 대한 출신 고교 유형별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표 VI-3>에 제시하였다. 진로행동과 유사하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측정한 사전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대학 입학 이후 진로정체감 수준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일반계고=.38, β 전문계고=.34). 부모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 수준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만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가 있었다($\beta=.06$).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대학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계고 출신의 경우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 중 이과계열과 공학계열은 인문, 사회, 교육계열 학생들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β 이과계열=-.04, β 공학계열=-.06). 대학경험과 특성 변수 중에서는 학습시간, 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대학의 교육 풍토가 출신고교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경우, 교수와 수업 외 상호교류의 빈도가 높을수록($\beta=.06$), 선후배들과 상호작용이 많을수록($\beta=.06$)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특성을 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에게 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주당 학습시간은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10$),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의 경우 주당 학습시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3> 출신 고교 유형별 진로정체감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일반계고				전문계고			
	b	S.E.	β	t	b	S.E.	β	t
(상수)	2.10	.11		18.27***	2.08	.30		6.84***
성별 (여성=1)	.05	.02	.03	1.90	.11	.06	.08	1.76
고2 진로정체감	.31	.02	.38	18.52***	.29	.04	.34	7.14***
부모의 지원정도	.08	.02	.08	3.79***	.03	.05	.03	0.62
대학								
이과계열	-.07	.04	-.04	-1.99*	.08	.09	.03	0.88
공학계열	-.10	.03	-.06	-3.21**	-.06	.08	-.04	-0.82
전공계열	.06	.04	.02	1.32	-.05	.08	-.03	-0.63
예체능계열	.06	.04	.02	1.32	-.05	.08	-.03	-0.63
의약계열	-.06	.04	-.02	-1.42	-.03	.08	-.01	-0.33
학습 시간	.00	.00	.03	1.55	.02	.01	.10	2.35*
강의수강 시간	.00	.00	.03	1.46	.01	.00	.06	1.44
교수와의 상호작용	.04	.01	.06	2.96**	.05	.03	.07	1.58
동료와의 상호작용	.03	.01	.06	2.95**	.04	.02	.08	1.95
진로교육 참여정도	-.00	.01	-.00	-0.09	.05	.03	.06	1.56
교육, 학생학습 강조	.05	.02	.05	2.44*	.01	.05	.01	0.20
실용적 교육 강조	.08	.02	.09	4.25***	.11	.05	.11	2.07*
수도권 대학 재학	.04	.02	.03	1.62	.08	.06	.05	1.45
n	2,766				561			
F	48.33***				9.94***			
R2	.24				.24			

교육과 학생학습을 강조하는 대학의 풍토는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높여주었으나($\beta=.05$),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실용적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영향력의 강도는 전문계고의 경우가 다소 컸다(β 일반계고=.09, β 전문계고=.11).

3) 직업가치관

마지막으로 직업가치관에 대한 출신고교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VI-4>와 같다. 앞서 기술한 진로성숙도의 두 하위요인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측정한 직업가치관의 수준이 대학 진학 이후의 직업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일반계고=.34, β 전문계고=.25).

<표 IV-4> 출신 고교 유형별 직업가치관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직업가치관	일반계고				전문계고				
	b	S.E.	β	t	b	S.E.	β	t	
(상수)	4.30	.16		26.65***	4.11	.36		11.45***	
성별 (여성=1)	.16	.04	.09	4.88***	.22	.09	.12	2.58*	
고2 일에 대한 태도	.34	.02	.34	17.18***	.24	.04	.25	5.54***	
부모의 지원정도	.10	.03	.07	3.62***	.08	.07	.05	1.19	
대학 전공 계열	이과계열	-.11	.06	-.04	-2.00*	-.20	.14	-.06	-1.44
	공학계열	-.12	.04	-.05	-2.75**	-.09	.10	-.04	-0.83
	예체능계열	.03	.06	.01	0.51	-.07	.11	-.03	-0.58
	의약계열	-.10	.06	-.03	-1.59	-.14	.14	-.04	-1.04
학습 시간	.02	.00	.09	4.87***	.02	.01	.11	2.33*	
강의수강 시간	.00	.00	.03	1.73	.01	.01	.07	1.59	
교수와의 상호작용	-.06	.02	-.06	-3.12**	.01	.04	.01	0.26	
동료와의 상호작용	.01	.02	.02	0.84	-.00	.03	-.01	-0.13	
진로교육 참여정도	-.05	.02	-.04	-2.31*	.00	.05	.01	0.09	
교육, 학생학습 강조	.11	.03	.08	3.78***	.13	.07	.09	1.98*	
실용적 교육 강조	.02	.03	.02	0.79	-.12	.07	-.09	-1.79	
수도권 대학 재학	.12	.04	.06	3.36**	.11	.08	.06	1.38	
n	2,766				561				
F	41.99***				6.07***				
R2	.21				.15				

*p<.05, **p<.01, ***p<.001

일반계고,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 모두에게서 유의한 성별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일에 대해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일반계고=.09, β 전문계고=.12). 부모의 심리적, 물질적 지원 수준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β =.07). 전공에 따른 차이 역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경우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과계열(β =-.04)과 공학계열

($\beta = -.05$) 전공자들은 인문, 사회, 교육계열 전공 학생들에 비해 일에 의미를 금전적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였다.

개인적으로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반계고($\beta = .09$)와 전문계고($\beta = .11$) 출신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공히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에 한해서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수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일의 의미를 금전적 가치와 결부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beta = -.06$). 대학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의 의미를 금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beta = -.04$). 재학 중인 대학이 학생의 교육과 학습을 중시하는 풍토는 일반계,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β 일반계고 $=.08$, β 전문계고 $=.09$). 마지막으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직업의 의미를 금전적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대학적응, 경험, 교육성과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서비스의 효과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 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을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들과 비교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에 터해 대학진로교육과 관련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후 진로특성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기술 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드러난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의 영역에서의 전문계고-일반계고의 차이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진로를 계획하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았으나,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직업에 대해 긍정적 가치와 인식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일반계

고 학생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상준 외(2008)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직업교육에 특화된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진로특성이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문계고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직업가치관, 직업의식 등 진로관련 태도적 측면보다는 직업세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훈련에 치중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실용적 기술이 취업에 유효리를 가를 수 있으나, 전생애적인 경력개발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른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데 있어, 취업기술 훈련 보다는 학생 자신의 적성,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자아 및 진로탐색, 직업과 관련된 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의식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모의 지원 정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행동, 진로정체감 및 직업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진로행동에만 약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개발에 부모의 지원, 소득 등과 같은 가족배경 변수의 긍정적 영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금지현, 2012; 기영락, 임성택, 2010; 탁승현, 김성희, 구혜령, 2013). 전문계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비전통적, 교육적 소수자에 속하는 학생임을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문계고 학생들은 일반계 학생들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 심리, 물질적 지원이 한정적인 편이다. 특히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의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예를 들면, 영어 및 자격증 학원 수강과 진로와 관련된 사교육 지원)도 중요할 수 있으나, 부모 자신의 취업 및 경력 경험에서 근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가치관, 태도와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 전달될 수 있는 직업세계 전반에 대한 지식 등 문화적, 심리적 지원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지원의 양은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과 동일하다고 해도 질적 측면이 전문계고와 일반계고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국 이 지점에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지원이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획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지식, 태도, 네트워킹 등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고민과 경험을 가진 전문계고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긍정적 직업가치관 함양 및 경력개발에 대한 열망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계고 출신 대학 선배와의 멘토링 지원, 워크넷 등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부 자원과 연계한 진로정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특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환경과 경험요인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및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의 효과는 교육과정이나 교육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 즉, 교수와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조언과 지도, 동료 학생들과의 교류와 집단효과를 통한 특정한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 등은 비형식적 교육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최지연(2012)은 전문계고 학생들은 대학진학 후 전문계고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해 밝히기를 주저하고 또한 다른 동료학생들과 상호작용과 적절한 역할모델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은 일반계고 출신 학생들에 비해 대학의 비형식적 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및 또래집단의 효과가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적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해서 대학에서 이들에 특화된 교육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낙인효과에 대한 염려가 더 클 수 있음을 감안하면,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특성 개발에 있어서는 교수 및 전문 교직원을 통한 진로지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각 대학은 교수 및 전문 교직원이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진로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와 전공별 분포와 같은 기본적인 학생자원 관련 정보로부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립된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진로, 학습 관련 특성과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의 수가 많은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계고 학생 지도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대학의 환경과 경험 요인 중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은 전문계고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미미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정도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계획 및 행동에는 정적 영향을, 진로가치관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특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결과상으로 볼 때, 일반계고 출신자와 전문계고 출신자 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상기한다면,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계고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소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일반적, 전통적 대학생(즉,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의 20대 초반 대학생)과는 다른 진로 및 경력개발과 관련된 특성과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일반적, 전통적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생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환경 및 경험 요인 중 개인의 학습시간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직업행동, 진로정체감, 직업가치관에 공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측정 도구의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수업준비, 과제 수행과 같은 학교의 정규교과 활동을 위해 소요한 시간인지, 어학교육, 자격증 취득 등 주로 사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경력 및 취업관련 기술훈련과 관련한 시간인지 본 연구에서 명확히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개인적 학습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이 증가할 때, 진로특성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전문계고 학생들이 소속한 대학의 공식적 교육서비스, 교육과정, 교육적 경험을 통해 경력과 진로개발에 도움을 받기 보다는 혼자, 개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계고 학생들은 가정적 배경과 학교생활에 있어서 일반계고 학생들에 비해 열세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학에서의 특별한 지원 없이 개별화된 진로 준비는 이들을 더 열세로 몰아갈 수 있다. 대학의 교육적 자원은 한정적이며,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원분배의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책무성의 관점에서 각 기관에 재학 중인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 모두가 대학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논리 못지않게 교육적 소수자, 비전통적 학습자의 요구와 수요를 고려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은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점차 일반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교육적 소수자, 약자, 소외자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책무성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의 진로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관련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진로특성 개발에 필요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보다는 2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이 더 빈번하며,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및 경험에 있어 연계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전문계고 졸업 후 2년제 대학 입학자들과 4년제 대학 입학자들의 진로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세부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대학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의 진로특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한

일반계고 출신 대학생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하여 전문계고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제안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냉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수단으로서의 대학교육에 대한 가치부여 등 사회적 분위기와 전문계고 졸업자를 위한 선취업·후진학 정책,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직업탐구영역 도입과 같은 국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전문계고 출신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중등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이다. 비록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나,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상 이들이 대학교육에 적응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학,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의 대학 진학을 유도함에 기여한 교육 정책을 도입, 실행한 국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전문계고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전문계고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졸업 후 즉각적 취업을 회피하는 수단 혹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닌, 자신의 진로 및 중장기적 경력설계를 위한 자기주도적 '방향 전환'이 될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방향 전환'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전문계고 학생, 졸업생을 위한 대학진학 관련 정책의 방향, 성과 등을 점검하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직업탐구영역의 실효, 지속여부에 대한 고민을 들 수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에 비해 직업탐구영역을 선택함으로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리함을 다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계고 학생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최지연, 2012) 직업탐구영역이 대학수학을 위한 준비에 직접적 연관이 없음도 사실이다. 전문계고 학생들도 사회탐구영역 혹은 과학탐구영역을 선택하도록 하되, 중등직업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교과목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예를 들면, 동일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연계를 통한 교차수강 허용, 전문대학에 보충교육과정[remedial education] 도입 등)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별책 1]).
- 금지현(2012). 교육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대한가정학회**, 50(7), 59-66.
- 김수구(2007). 전문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의 원인과 입시전략에 관한 인식의 탐구. **인문학연구**, 34(2), 27-53.
- 김수원(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탐색활동과 고용 여건 및 만족도의 관계.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7(1), 33-54.
- 김승철, 문혜영(2014).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9(3), 1-17.
- 김영희, 김성봉(2011).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1), 29-55.
- 김원정, 오명숙(2013). 공학계열 남녀 졸업생의 조사를 통해 본 교과과정 내의 활동의 취업 기여. **공학교육연구**, 16(3), 69-78.
- 김유호(2013). 대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진로선택·만족 및 전공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보건 의료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1), 165-182.
- 김지연, 이경희(201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49-76.
- 김태석, 이기학(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남아란, 하정(2012).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과 진로미결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청소년시설환경**, 10(3), 27-37.
- 류운석(2012). 전문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신뢰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육문제연구**, 42, 245-263.
- 류정희(2014).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교수 친밀감의 매개효과 및 교수 전문성의 조절효과. **취업진로연구**, 4(2), 21-37.
- 박가열, 노경란(2006). **청소년 직업체험 학습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완성(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 안강현, 이용환(1998).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1-18.

오성욱, 이승구(2009). 대학생의 직업가치 유형이 직무적합도 및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2), 1-19.

유은영, 양유정(2013). 대학생의 학과만족도,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2), 557-568.

이상길(200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인구통계적 변인 및 진로결정의 현재미래과거적 변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9(1), 141-154.

이상준, 김나라, 윤여인, 고재성(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연구(정책연구 2008-4)**.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재창, 조봉환, 최인화, 임경희,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최정인, 김수리(2014). **상담전문가를 위한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최지연(201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 준비와 대학 적응 사례 연구. **청소년학연구**, 19(8), 23-53.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연보**.

한국진로교육학회(2011). **선진 패러다임을 위한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Gault, J., Redington, J., & Schlager, J. (2000). Undergraduate business internships and career success: Are they related?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2(1), 45-53.

Loewenthal, K. M. (1996). *An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London: UCL Press Limited.

Sagen, H. B., Dallam, J. W., & Laverty, J. R. (2000).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s on the initial employment success of college graduat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6), 753-767.

* 논문접수 2017년 5월 8일 / 1차 심사 2017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7년 6월 22일

* 백선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paik@ginue.ac.kr

* 심우정: 연세대학교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고등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일리노이 대학교 교육정책, 조직, 리더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wjshim@illinois.edu

Abstract

Vocationa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Maturity in Comparison to those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Paik, Sunhee**

Shim, Woo-jeong***

Increasingly many voc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have gained access to higher education; however, they are yet to face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college education, being engaged with effective educational practices, and finally achieving a much aspired vocational outcome. This is primarily caused by vocational students' lack of academic preparation coupled with insufficient support on part o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vocationa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se patterns in comparison to those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by analyzing the 5th and the 7th year data from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vocational students reported lower levels of career planning behaviors, were less aware of their career identity, and put more emphasis on materialistic values of future jobs than their peers graduating from general high schools. While parental supports and such college experiences as participation i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ppeared to result in favorable outcomes for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the same trends did not hold true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Frequent out-of-class interactions with faculty members or peers increased vocational students' career planning behaviors, and college ethos of emphasizing student development and learning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vocational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occupational values.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career outcomes of vocational students on college campus were discussed.

Key words: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maturity, career identity, occupational value

* A preliminary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11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sponsor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author,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